

Flower garland sutra

화엄의 나라

1주차

화엄이란?

박보람 교수

dongguk
UNIVERSITY



K학술확산연구소

화엄의 나라

목 차

I	학습안내	3
---	------------	---

II	강 의	5
----	-----------	---

- 1-1 강의 개요와 ‘화엄’의 의미
- 1-2 대승불교와 대승경전
- 1-3 화엄부 경전 개요(1)
- 1-4 화엄부 경전 개요(2)
- 1-5 화엄부 경전 개요(3)

III	퀴 즈	26
-----	-----------	----

IV	토 론	28
----	-----------	----

V	참고문헌	28
---	------------	----

화엄의 나라

I. 학습안내

1

강의 개요

동아시아 불교, 특히 한국불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온 화엄사상의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본다.

2

학습목표

- 동아시아불교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 『화엄경』의 대강을 이해할 수 있다.
- 동아시아에서 형성된 화엄사상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다.

화엄의 나라

3

주차별 강의주제

1주차	화엄이란?
2주차	동아시아의 초기 화엄사상
3주차	신라 화엄사상의 흐름
4주차	고려 · 조선 화엄사상의 전통
5주차	『대방광불화엄경』의 개요
6주차	불교와 화엄의 목표 · 방법 · 내용
7주차	화엄의 ‘나’ 이해
8주차	화엄의 ‘나’ 이해 - 각론[1]
9주차	화엄의 ‘나’ 이해 - 각론[2]
10주차	지금, 여기서 여래로 살기

II. 강의

1-1

강의 개요와 ‘화엄’의 의미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대학교 철학과의 박보람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화엄의 나라’ 라는 제목으로 동아시아에서 꽃을 피운 화엄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조금 실수하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엄의 나라’ 수업의 강의개요와 화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에 앞서 기본 작업으로 화엄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목표를 먼저 살펴보면, 이번 시간에는 ‘화엄의 나라’ 강의의 목적과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이 강의의 대강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화엄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화엄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중층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을 먼저 살펴보면, 여러분이 이 세상의 많은 수업, 불교만 따져보더라도 수많은 수업이 있는데 화엄의 나라를 왜 지금 시청하고 강의를 하고 계실까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게 이 수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아시아의 화엄사상, 특히 한국의 화엄사상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조금이나마 되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화엄의 나라 수업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화엄사상이 이 수업의 주요 내용이 될 텐데요. 동아시아 화엄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는 측면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상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동아시아 화엄사상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하는 생각은 무엇보다도 먼저 불교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부터 출발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불교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저도 마찬가지이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고 그게 과연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동아시아 화엄사상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화엄사상이 추구했던 본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목적 중 하나인 사상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동아시아의 화엄사상은 무엇을 어떻게 해 왔는가에 대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엄의 나라

즉 앞의 동아시아 화엄사상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의 측면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해 왔는가를 이제까지 동아시아 화엄사상은 어떻게 해 왔는가 하는 사상사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수업의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동아시아 화엄사상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방광불화엄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방광불화엄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루겠지만, 어쨌든 동아시아 화엄사상의 근간이 되는 대승불교 경전이라고 지금은 간략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동아시아 화엄사상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방광불화엄경이 동아시아 또는 중국에 한역된 다음에, 한역된 대방광불화엄경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해석 체계가 등장하게 되는데, 화엄종이라는 동아시아 화엄사상을 대표하는 해석 체계가 완전히 자리 잡기 이전에, 즉 화엄종 이전에 동아시아의 불교 상황을 간단히 개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업의 뭐라고 할까요? 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 화엄사상의 대표적 해석 체계라고 할 수 있는 화엄종의 흥기와 전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으로써 이렇게 3개의 파트로 사상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 수업, 강의의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다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사상과 사상사적 측면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사상과 사상사를 다룰 때 계속 되뇌면서 거기에 대입시켜 생각해 보는 것이, 뭐랄까요? 중요한 방향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실제로 동아시아에서 화엄사상을 구축해 온 여러 스님들, 제가불자들 또한 이런 화엄사상을 일구면서 자신의 삶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되뇌면서 개척해 왔기 때문에 이런 화엄사상이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구성을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3가지 목적에 따른 강의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화엄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화엄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교라는 것이 인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도에서 석가모니 붓다에 의해서 불교가 시작된 이래에 어느 시점을 지나서 대승경전이 창작되고, 그 대승경전 중 한 부류로써 화엄부 경전이 성립되고 그것의 또 하나으로써 화엄경이라는 것이 성립되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목적에서는 사상 측면을 먼저 말씀드렸지만, 강의 진행 순서로는 사상사적 측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상사적 측면에서는 인도에서 화엄부 경전이 생겨나고 이것이 중국에 한역된 다음에 다양한 해석, 교리 체계가 형성됩니다, 동아시아에서.

이런 동아시아의 다양한 해석 체계 중에 결국 화엄종이라고 하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 드릴 해석 체계가 주류 해석 체계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물론 그것이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 주류 해석 체계로 자리를 잡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경과를 거쳐서 사상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두 번째 구성 항목입니다.

화엄의 나라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상적 측면인데요. 불교와 화엄의 목표와 방법,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와 화엄의 목표는, 화엄도 불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와 화엄의 목표는 결과적으로 이고득락입니다. 고통을 여의어 즐거움을 얻는다. 즉 행복한 삶을 산다고도 다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목표로 해서 방법이라고 한다면 나에 대한 참다운 앎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와 화엄의 방법이고요.

이것을 나에 대해서 참다운 앎이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 불교와 화엄 모두 당연히 나를 ‘무아연기’로 파악할 때 그것은 나에 대한 여실지견이고,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여인다는 것이 불교의 목표와 방법, 내용이고 이것은 화엄에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못 다한 말, ‘So What?’ 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께서, 그래서 뭐냐.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엄이라는 말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고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는 간단합니다. 물론 인도말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우리가 시작은 너무 인도말부터 가지 말고 간단하게 우리가 그 나라에 조금 더 익숙한 학문으로 뜻을 말씀드리면 ‘꽃 화’ 자에 ‘장엄할 엄’ 자입니다. 그래서 꽃장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꽃 장엄. 그래서 조금 더 풀면 꽃으로 장엄한다는 의미일 텐데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의미나 산스크리트 원어 등은 추후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지금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화엄이라는 말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화엄이라는 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화엄사상이라고 앞으로 이번 강의에서 사용할 때 조금 중층적이고 다의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여러분이 숙지하셔야만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혼란을 겪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화엄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당연히 인도에서 이루어진 또는 중앙아시아에서 이루어진 경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게 한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화엄이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는 당연히 꽃장엄이겠죠. 물론 나중에 거기에 교리적인 의미가 점차 중층적으로 붙게 되지만, 어쨌든 단순하게는 꽃장엄이라는 말인데, 그것이 대방광불화엄경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인도에서 대승경전, 그리고 대승경전 중에서도 화엄부 경전이고를 화엄부 경전 중 하나인 대방광불화엄경이 나옵니다.

그다음 또 화엄이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느냐면, 화엄사상이라는 말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저도 지금 수업이 시작돼서 얼마 안 됐지만 몇 번 사용했는데요. 화엄사상이라는 것은 넓게는 화엄경의 사상도 의미할 수 있고 또한 이에 대한 해석, 또는 이를 바탕으로 성립한 교리의 사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에서 화엄경을 연구한 사람의 사상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를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이고 티베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좁게는 이 강의에서 약간 작업가설적으로는 아래에서 설명 드릴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진 대방광불화엄경에 대한 주류 해석 체계인 화엄종의 사상을 의미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만약 화엄사상이라고 얘기한다면 물론 원래 의미는 넓게 사용할 수 있지만, 좁게 사용해서 화엄종의 사상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좀 더 넓게 사용할 때는 그때 따로 별도로 언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엄종에서 화엄이라는 말이 사용됐는데요. 이것은 화엄경이

화엄의 나라

한역, 한문으로 번역된 다음에 여러 가지 해석체계가 생겨나는데, 그중에서 주류 해석 체계로 자리를 잡은 화엄종이라고 하는 해석 체계에서 화엄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화엄교학에서 화엄이라는 말도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화엄사상에서의 화엄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게는 여러 가지 교리의 해석 체계를 아우른다고 할 수 있고, 좁게는 화엄종의 해석, 교리 체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조금 복잡하게 해서 쓸 수도 있는데, 화엄사상에서 화엄이란 화엄종의 화엄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 하지만 사실 원래는 조금 중층적인 의미를 가지고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강의를 요약하면, 이 강의의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의 화엄사상, 특히 한국의 화엄사상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 제가 소망하는, 여러분과 이번 학기, 이번 시간을 한번 함께 하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구성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강의의 구성은 크게 3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화엄경을 소개하고, 화엄경이라는 건 화엄사상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화엄경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 동아시아의 화엄사상이 무엇을 어떻게 해 왔는가에 대한 사상사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동아시아 화엄사상이 사상사적 측면에서도 드러나듯이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사상적 측면, 교리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엄이라는 말의 구체적인 말의 의미가 무엇이나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전적 의미는 단순히, 단순히 그냥 꽃 장엄입니다. 꽃으로 장엄한다, 꽃으로 장식한다. 그런데 그것의 역사적 의미는 중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간략히 얘기하자면 화엄사상에서의 화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강의에서는 작업 가설적으로 화엄종의 사상을 가리킬 때 화엄사상으로써 이 강의에서 사용하겠다. 하지만 원래대로 얘기한다면 넓게 여러 가지 중층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화엄경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그것의 배경으로써 대승불교와 대승경전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승불교와 대승경전은 인도불교의 흐름과 인도불교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대승불교의 흥기. 그리고 대승불교의 흥기의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승경전이 어떠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1-2

대승불교와 대승경전

이번 시간에는 화엄의 나라, 대승불교와 대승경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도불교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대승불교 성립의 배경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화엄의 나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화엄의 나라, 즉 화엄사상 또한 불교이고, 불교라는 것은 인도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인도불교의 흐름을 개괄적으로나마 살펴보는 것이 화엄사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엄사상은 대승불교의 한 부류이기 때문에 대승불교 성립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불교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대승불교 성립의 배경을 이해하는 학습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승불교와 대승경전의 개요를 살펴봄으로써 화엄부 경전 성립의 배경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화엄부 경전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승경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승경전이 어떤 개요를 가지고 성립되는가에 대해서 이해한 이후에 화엄부 경전 성립을 이해해야만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러면 인도불교의 흐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먼저 인도불교의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익숙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면, 맨 처음에 석가모니 붓다라는 분이 활동하는 시기가 대략 공통기원전대라고도 이야기하고, 하여튼 기원전 5세기경에서 4세기경입니다. 이걸 사실 고대 인도의 연도는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라는 건 우리 강의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대략 이 정도쯤에 석가모니 붓다라는 분이 활동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원전 5세기 또는 4세기경에 석가모니 붓다가 활동하고, 그 활동에 의해서 불교라는 하나의 사회현상 또는 종교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까지 전 세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세기, 4세기에는 석가모니 붓다가 활동하고, 그로부터 한 100년 후에 석가모니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의 집단이 분열하게 됩니다. 그것을 부파 분열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석가모니 붓다의 입멸 후 100년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략 기원전 4세기 또는 3세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부파가 분열되고, 근본 분열을 하고 그다음에 지말 분열이라고 해서 하여튼 석가모니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의 집단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그것이 나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 강의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율적인 차이, 그다음에 이어서는 교리적인 차이, 아니면 지역적인 차이, 아니면 스승에 따른 차이 등으로 인해 부파가 분열된 다음에 저마다의 부파가 발전에 발전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이것 또한 연대는 그렇게 정확한 연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빠르면 기원전 2세기까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기원전 1세기경에 대승불교가 흥기하게 됩니다. 대승불교가 발생하

화엄의 나라

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대승불교가 이루어지고 나서 기존에 있었던 기존 불교라고 할까요, 아니면 부파불교라고 할까요? 부파불교와 대승불교가 병존하게 되고, 최근 기본적인 입장은 어디까지나 인도불교의 주된 흐름은 부파불교가 주류 불교로써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대승불교는 약간 마이너적인, 인도 내에서는 그런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근래의 주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03년이죠. 1203년에 인도에서 이슬람이 침입하면서 마지막에 비크라마실라 사원이 파괴되면서 공식적으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되는, 아주 크게 보면 이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볼 화엄의 나라라는 것은 기원전 2세기, 1세기경에 출현하는 대승경전 또는 대승불교의 하나의 부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와 대승경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승이라는 것을 살펴봐야 하는데, 대승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아시다시피 큰 수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수레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아까의 말을 빌리자면 부파불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불교를 소승, 작은 수레라고 폄칭을 하면서.

물론 소승이라는 말을 지금은 쓰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대승이라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불교를 소승이라고 폄칭하면서, 우리들은 대승이고 너네들은 소승이라고 하면서 대비했던 일종의 불교의 혁신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기원전 1세기경에 시작된 불교 혁신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승불교의 구체적인 행위는 무엇이었는데 한다면, 근래의 대승불교 흥기의 구체적인 행동은 대승경전의 찬술이라고 보는 것이 아마도 주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의 이론이기 때문에 후대의 다른 새로운 고고학적 자료나 문헌학적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대승불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나. 어떤 계율에 따른 교단의 분열이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대승경전의 찬술이 대승불교 흥기의 구체적인 모습, 구체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 주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의 찬술을 통해서 비롯된 대승불교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대승교단이라는 것이 있고. 교단이라고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별도의 계율과 계율에 따른 행위를 독립된 집단에서 행해야만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대승교단이 있고 그 대승교단에서 대승경전을 생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승경전이 먼저 찬술되고 그것이 아주 후대에, 사실 대승교단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건 논란이 있습니다만, 계율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어쨌든 경전이 먼저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흥기, 일어났다고 얘기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냐면, 그것은 대승경전이 편찬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류 이론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4세기까지는 모두 소규모 운동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제가 맨 처음에 불교를 배웠을 때만 해도 우리 동아시아에 대승불교가 주류적인 불교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일어난 다음에 기존에 있던 부파불교 또는 대승에서 폄칭해서 불렸던 소승불교 같은 게 인도에서 다 사라졌다는 식으로도 오해 아닌 오해로 배운 적도 있었는데. 지금 근래의 기본적인 입장은 대승불교는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질 때까지도 비

화엄의 나라

주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메이저는 안 됐다는 것이 주류 이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4세기까지는 매우 소규모 운동이었고, 4세기 이후에도 세력이나 이런 것은 기존의 부파불교가 더 주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승과 비대승. 비대승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는데요.

기존에는 전통적으로 소승이라는 편칭으로도 불렸고 부파불교라고도 불렸던, 영어로는 메인스트림 부디즘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명칭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위로 불려도, 이쪽이 이걸로 부르면 이쪽이 안 맞고, 저걸로 부르면 이쪽이 안 맞는 애매함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요. 어쨌든 대승과 비대승은 계율의 차이인가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대승불교의 흥기에 관해서는 사실 별도의 강의에서 자세하게 논의되어야 할 만큼 복잡한 내용이고 사실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결론이 난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 강의의 이해를 위한 그 정도의 범위에서 얘기한다면 계율의 차이냐, 아니면 뭐의 차이냐를 살펴봤을 때 예를 들어 비대승과 대승은 공주. 그러니까 한 교단에서 같이 머물러서 살았다는 기록도 있는 것을 봤을 때 계율의 차이라기보다 그 이외의 다른 차이였을 거라고 보는 것이 지금의 주류 이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승은 독립된 승단인가, 또는 대승불교 승려는 존재했는가. 대승불교 승려가 존재하려면 대승불교 율에 의해서 구속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을 따져봤을 때도 대승불교라는 것은 계율보다는, 기존 불교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발생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계율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교리. 특히 불타관이나 성불론, 보살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존 불교의 불타관이나 성불론이나 보살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비판적인 사상을 대승경전이라는 형태로 찬술함으로써 대승불교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 가장 널리 인정받는 학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아시아에서는 물론 주류불교의 입장을 차지했지만, 주류불교로 성장했지만 인도에서는 끝끝내 주류불교의 자리를 차지하지는 못하지 않았는가 지금까지의 정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승불교는 당연히 인도에서 흥기했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당연히 대승불교가 펼쳐졌겠죠. 물론 주류불교를 차지했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고, 차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주류 이론이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에 옛날 실크로드 지역에 펼쳐져 있던 중앙아시아 국가에도 대승불교가 전파됐고요. 그다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아시아, 즉 중국, 한반도라고도 할 수 있는 한국, 일본 지역에서는 대승불교가 주류불교로써 명확하게 차지하고 있죠. 그다음 티베트도 마찬가지로 티베트의 불교도 대승불교가 주류불교입니다.

그다음 동남아시아에서도 대승불교가 전파되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물론 이슬람이 차지한 지역이긴 합니다만 인도네시아에도 보로부두르 사원을 보면 보로부두르 사원은 대승불교, 특히 그 중에서도 대방광불화엄경에 보이는 세계관을 보로부두르 사원 내에 구축해 놓은 것을 봤을 때 대승불교가 전파되었고, 그중에서 특히 화엄경도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인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티베트,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대승불교가 펼쳐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인도를 제외한다면 물론 중앙

화엄의 나라

아시아는 지금 이슬람화 되었지만, 동아시아나 티베트에서는 대승불교가 주류불교의 입장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별, 교리별로 보면 초기에는 대승불교 경전 중 가장 빠른 것은 지금까지의 이론에서는 반야부 경전이 가장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초의 대승문헌은 반야부 경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야부 경전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반야바라밀다라는 반야부 경전이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반야바라밀다, 즉 완전한 지혜를 강조하는 경전이고 그것은 공성, 보살에 집중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승불교 내에도,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화엄도 그렇고 유식도 있고 정토도 있고 여러 가지 대승불교의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반야부 경전은 조금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모든 대승불교의 공통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중기 대승경전이라고 보통 얘기한다면 법화부 경전, 우리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법화부 경전과 그다음에 우리 강의의 주 경전이기도 한 화엄부 경전, 그다음 정토부 경전. 이 정도를 아주 초중기, 그렇고 반야부 경전보다 조금 늦게 나왔거나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왔거나, 하여튼 그 정도의 시기에 출현한 경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뒤 이어서 유식사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부 경전, 그다음 여래장사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여래장 경전들이 출현하고, 그다음에 후기에 밀교부 경전이 나온다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걸 이해의 문제이지, 사실 다른 증거가 나오면 뒤바뀔 수 있는 theory의 문제입니다.

하나 여기에서 조금 덧붙일 것은, 예를 들어 반야부 경전은 초기에만 편찬되고 그다음에 편찬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이걸 반야부 경전, 이걸 법화부 경전이라고 딱 나눌 수 있느냐. 도식적으로 나누기는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나누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야부 경전은 초기부터 나중에 후기에 밀교부 경전이 편찬될 때까지 계속 편찬됩니다. 또 사상적으로, 교리적으로도 이걸 반야부 경전이고 이걸 밀교부 경전이라고 딱 나눌 수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반야부 경전과 나중에 밀교부 경전이 서로 결합하면서 반야밀교부 경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결합된 형태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경우에는 나누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선은 설명을 위해서 개론적으로 이렇게 일단 시기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화엄부 경전도 마찬가지 예입니다. 화엄부 경전도 초중기에 등장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증강되거나 아니면 그런 화엄사상을 담고 있는 새로운 경전들이 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밀교와도 결합하고 여래장사상과도 결합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다단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일단 개론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첨언하자면, 이렇게 구분된 경전류들이 시기와 교리별로 서로 결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도불교의 흐름을 아주 간략하게, 석가모니 붓다에 의해 불교가 기원전 4세기 또는 5세기경부터 시작돼서 그다음에 100년 후에 석가모니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이 분열되고, 근본분열과 지말분열을 거쳐서 분열되고 그다음에 대승불교가 기원전 1세기 또는 크게 보면, 아주 멀리 보면 2세기경까지 대승경전 편찬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흐름을 살펴봤고요.

화엄의 나라

대승불교의 흥기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존의 불교, 부파불교라고 얘기되었던, 비대승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기존 불교의 계율관의 차이라기보다는, 물론 그 계율에 대해서 나중에는 공격하기도 하지만 최초에는 계율에 대한 불확합이라기보다는 불타관이라든가 아니면 성불론, 보살에 대한 입장 차이. 즉 사상, 교리적인 차이로 인해서 사상적, 교리적 차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대승경전 편찬을 통해서 유포시킴으로써 대승불교가 흥기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이 대승경전으로 유포됐을 때 대승경전이라는 것은 가장 최초는 반야부 경전, 그다음 바로 뒤를 이어서 법화부 경전, 화엄부 경전, 정토부 경전 등이 등장하고 또 뒤를 이어서 유가 경전, 여래장 경전을 마지막에는 밀교부 경전 등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사실 상당히 도식적인 구분이기도 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로는 그것들 사이에 아주 복잡다단한 인연 관계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점점 저희 본론 주제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화엄부 경전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화엄부 경전 개요(1)

이번 시간에는 화엄의 나라 수업 강의 중에 화엄부 경전의 개요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화엄부 경전의 개요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화엄부 경전의 의미와 화엄부 경전의 종류를 중심으로 해서 화엄부 경전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목표를 살펴보면 화엄부 경전의 의미와 종류 등을 파악함으로써 화엄부 경전의 대강, 즉 화엄부 경전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인 윤곽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엄부 경전의 개요인데요. 화엄부 경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전에 들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화엄부 경전, 약간 모호한 개념이기도 하고 사실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자료나 그다음에 화엄부 경전의 정의를 내리려고 생각해 봤더니, 상당히 저 자신도 모호한 개념 이더라고요. 쉽게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모호한 개념이었는데요. 그 이유를 추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종류를 통해서, 화엄부 경전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곽을 파악하기 위해서 종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엄부 경전은 크게 세 그룹의 경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그룹이라는 것은 무엇이나면, 첫 번째는 별행경입니다. 별행경이라는 건 뭐냐면, 좀 이상한 말이기도 한데요. 개별적으로 돌아다녔다는 뜻입니다, 개별적으로 돌아다녔다. 개별적으로 조그마한 단독 경전들이 돌아다녔다는 건데, 왜 이런 말이 붙느냐면 세 번째 경전 그룹을 이해하셔야만 이해가 되실 건데요. 어쨌든 첫 번째는 조그마한 경전들이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별행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원시 집성 화엄대경이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원시라고 해서 원시인 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원시라는 건 최초에 조그맣게 돌아다니던 별행경들이 조그마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약간의 체계를 가지고 느슨한 아이디어 아래에 모이게 됩니다. 그것을 집성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최초로, 처음으로 별행경들이 2~3개 정도 모인 것을 원시 집성 화엄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이 아주 더 진행해서 상당히 여러 개의 조그마한 경전들과 그다음에 두 번째의 원시 집성 화엄대경도 같이 포함해서 별행경과 원시 집성 화엄대경이 어떤 사상적 체계와 편찬 의도를 가지고 큰 하나의 경전을 이루게 된 것이 세 번째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 대방광불화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강의에서는 화엄대경이라고도 줄여서 부를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대방광불화엄경이라고도 얘기할 텐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우리 강의에서 책 표시로 대방광불화엄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화엄부 경전의 3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크고 그다음에 가장 사상적 체계를 갖춘 화엄대경을 가리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엄의 나라

그래서 화엄부 경전이라는 것은 이 3가지 카테고리의 경전군들을 가리키는 말이 화엄부 경전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별행경,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별행경이라는 건 한문으로도 개별적으로, ‘행’ 자는 ‘단일 행’ 자로써 개별적으로 유통되었다는 뜻인데요. 단독으로 유통된 화엄부 경전을 가리킵니다.

종류를 또 나눌 수는 있는데요. 사실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세 번째 카테고리인 화엄대경, 대방광불화엄경에 포함된 품에 상응하는 별행경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차차. 지금은 한 귀로 들으셨다가 한 귀로 흘려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이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한번 귀에 흘려보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화엄대경에 포함된 별행경들이 있고, 화엄대경에 포함되지 않은 별행경들이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엄부 경전의 별행경에는 화엄대경에 포함된, 예를 들어서 화엄대경에 있는 품. 여기에서 품이라는 건 영어로 치면 챕터라고 할 수 있는데,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용에 따른 챕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십지경이라든지 여래흥현경 등의 경전들이 별행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엄대경에 포함된 품과 유사한 내용을 설하는 별행경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방광 보현 소설경이라는 별행경이 있는데 이걸 세 번째 카테고리의 화엄대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엄부 경전의 별행경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리하면 별행경은 두 종류. 화엄대경에 포함된 별행경과 포함되지 않은 별행경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정도로만 지금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카테고리인 원시 집성 화엄대경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집성 화엄대경은 앞서 살펴본 단독 별행경 몇 개가 약간의 체계를 갖추고 집성되어 유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단독 별행경들이 있고, 그것들이 돌아다니다가 약간의 체계를 갖추고 집성되어서, 모여 가지고 다른 경전명을 가지고 유통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지루가참역의 도사경입니다. 도사경이 178년~189년 사이에 한역되는데요. 물론 인도나 어디에서 이것이 집성됐는지를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루가참역 도사경은 60권본 화엄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세 번째 카테고리에서 대방광불화엄경을 얘기했는데 그 대방광불화엄경도 사실 몇 종류가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대방광불화엄경 중 가장 먼저 번역되는, 60권짜리로 된 아주 큰 경전인데요. 그 경전 중에 여래명호품과 여래광명각품에 해당하는 내용이 도사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도사경이라는 것은 기존의 별행경들이, 여래명호품과 여래광명각품이 따로 돌아다니다가 여기에서 같이 집성되어서 도사경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 별행경과도 다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인 완전히 체계를 갖춘 화엄대경과도 다른 약간 중간 단계적인 경전군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전 중에 또 다른 예로는 지겸역에 불설보살보업경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의 시기는 보시다시피 222년 사이에서 229년 사이에 한역되는데요. 이것은 좀 더 모여 있습니다. 60권본 화엄경을 기준으로 하면 여래명호품, 광명각품, 정행품을 불승수미정품, 보살운집묘승전살설게품, 보살십주품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이 모여 있죠. 상당히 많이 모인 이런 품들이 불설보살본업경이라는 경전으로 집성되어서 유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엄대경인데요. 화엄대경은 우리 수업에서 사용하는 작업가설적인 명칭인데, 일

화엄의 나라

반적으로 사용하지만 대방광불화엄경을 가리킵니다. 대방광불화엄경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별행경들을 어떤 편집의도를 가지고 체계를 갖춘 집성한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별행경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간 단계의 원시 집성 화엄대경도 포함해서 별행경들을 어떤 구체적인 편집 의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 거죠.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는 처음에 여기, 이 재료는 중간에, 이 재료는 마지막에, 이렇게 편찬하는 의도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되는 대로 배치한 것은 아니고, 배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상적인 의도겠죠.

그런 편집 의도를 가지고 체계를 갖춰서 가장 갖춰진 형태로 집성한 경전을 화엄대경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대’ 자는 물론 ‘큰 대’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경명은 대방광불화엄경이라는 말로 한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4세기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도 실크로드에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특히 코탄이라는 나라, 한문으로는 우존이라고 하는데요. 우존국에서 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종류가 현존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역으로 2종이 번역돼서 지금까지 남아 있고요. 그다음 티베트어역으로도 1종이 번역된 것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역 2종은 아까 잠깐 소개해 드린 60권본 화엄경이 처음 418~420년 사이에 번역된 것이 가장 먼저 화엄대경 카테고리에서 번역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80권본 화엄경이 695~699년 사이에 번역된 것으로써 두 번째 번역된 80권본 화엄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역 2종이고요. 티베트어역은 티베트에서 지금 약간 시기는 불분명합니다만 9세기에서 10세기 사이, 지금은 9세기 이론이 더 주류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9세기 초에 티베트에서 번역된 것이 1종 있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비교해 보겠지만, 60권본과 80권본 화엄경은 약간 일부분의 차이를 빼고는 거의 비슷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런 면에서 같은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화엄대경이라는 카테고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존 화엄대경의 종류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한역 2종류는 제목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방광불화엄경이라는 것으로 제목이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60권본 화엄이라는 말도 쓰고 그냥 줄여서 60화엄이라는 말도 씁니다. 또는 80권본 화엄이라는 말도 쓰고 80화엄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이것의 시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진 시대에 418년~420년 사이에 불타발타라에 의해서 번역되었고, 이것의 품수. 품수는 아까 챗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용에 따른 구분인데요. 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34개의 품수를 가지고 60권의 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60화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맨 처음에는 50권으로 유통됐었는데, 유통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60권으로 유통되던 것이 더 주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일상적으로 60권 유통본이 주류를 차지해서 60화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95년~699년 사이에, 대주 연간인데요. 대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촉천무후가 세운 나라죠. 촉천무후가 세운 그때 실차난타에 의해서 번역된 것이 80화엄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의 구분인 품수로는 39품이 있습니다. 60화엄보다는 좀 더 증강됐죠.

그다음에 권수로는 80권으로 번역되어서, 내용상이나 분량상 60권 화엄보다 조금 더 증강, 더 확장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티베트어역을 보시면, ‘상계 펠포체 세자와 신투 게파 첸페이도’ 라는 제목을 가지

화엄의 나라

고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불장엄’이라는 대방광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반, 9세기 초반이 좀 더 유력한데요. 어쨌든 지나미트라나 수엔드라보디, 예시데 등이 번역했다고 하는데 이걸 번역자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티베트어역을 주로 살펴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품수는 45품이고, 기존의 한역권보다 좀 더 증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방광불화엄경의 집성에 대해서 지금 현황을 살펴보면, 집성 전반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불분명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는 걸 소개해 드리는 건데, 주류 학설은 250~350년 사이에 코탄에서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그 근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현존 인도 자료에서 화엄대경이 유통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두 번째로는 한역 원본. 60화엄경이나 80화엄경 다 한역 원본,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본이겠죠. 인도말로 된 원본을 우전국에서 가져왔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전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아직은 없습니다. 우존국에서 가져왔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리고 한역본에 중국의 지명이 등장하니까, 그러면 인도는 중국의 지명을 잘 모를 테니까 그 중국의 지명을 알 수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대방광불화엄경을 보면 인도에는 없고 중앙아시아에만 있던 음가, 소리. 음소가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도에서 편찬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존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편찬되었을 것이다, 집성되었을 것이라는 이론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런 각각의 근거에 대해서 많은 반론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서로 치고박고 하는 논란이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탄이라는 지역인데요. 코탄이라는 지역을 보시면, 중앙아시아의 남로에 있는 지역에 코탄이라는 나라가 위치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분명한 것은 60화엄경, 80화엄경 다 이 나라에서 범어원본을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화엄을 숭상하고 대승불교를 좋아했고 화엄부 경전을 특히 좋아했다는 것은 여러 기록에 나옵니다만 물론 한문 쪽 기록입니다만, 중국 쪽 기록입니다만. 하지만 아직 여기에서 집성되었다는 기록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애매한 부분은 아직 현존 자료에서 코탄에서 화엄부 경전 자료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코탄 기원설, 코탄 편찬설을 반론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대방광불화엄경이 어디에서 편찬되었는가는 아직 미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화엄부 경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화엄부 경전의 종류는 3가지. 별행경, 원시 집성 화엄대경, 대방광불화엄경 또는 화엄대경으로 나눌 수 있고, 현존하는 화엄대경은 총 3가지. 한역 2종, 즉 60권 화엄경, 80권 화엄경, 그다음에 티베트어역 화엄경. 이렇게 3가지 종류가 남아 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화엄대경은 예전에는 코탄에서 편찬되었다고 했지만 지금 와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론이 많다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시간에는 화엄부 경전의 두 번째 시간으로 대방광불화엄경, 즉 우리가 앞서 소개한 화엄부 경전의 3가지 카테고리 중 세 번째 화엄대경이라고도 얘기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의 제목의 의미와 그것의 차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대방광불화엄경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4

화엄부 경전 개요(2)

이번 시간에는 화엄부 경전의 개요를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대방광불화엄경, 즉 우리가 앞선 시간에 살펴본 화엄부 경전의 3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는, 가장 완비된 체계를 갖추고 집성된 이른바 화엄대경이라는 것의 제목과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따라서 학습목표로는 대방광불화엄경의 제목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동아시아 화엄사상의 근간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화엄사상, 우리가 앞으로 조금씩 진행시켜 나갈 동아시아 화엄사상 또는 화엄종의 사상은 대부분 대방광불화엄경에 근간해서 구축되었기 때문에 대방광불화엄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방광불화엄경에 대한 이해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측면에서 제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방광불화엄경의 제목입니다. 대방광불화엄경은 사실 제목부터 자세한 학술적으로는 논란이 상당히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방광불화엄경은 한역과 티베트어역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즉 산스크리트 원본이 남아 있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산스크리트 원본이 남아 있지 않아서, 여기에서 말하는 산스크리트는 인도의 고대어입니다.

지금의 힌디어가 아닌 인도의 고대어, 예를 들어 기원전 3~4세기부터 쓰여 왔던 산스크리트, 인도의 고대어로 된 화엄대경의 원본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산스크리트 제목을 확인하는 것조차 사실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가 진척되고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힘입어 최근 근래에는 산스크리트 단편. 단편이라는 것은 화엄경의 조그마한 조각이죠. 전체는 없고 조그마한 조각이 남아 있는데, 그 단편으로부터 제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제목이라는 것은 ‘붓다아바탐사카 나마마하바이플리아 수트라’라는 제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붓다아바탐. 붓다는 부처라는 뜻이죠. 부처님이라는 뜻이고, 아바탐사카는 장엄이라는 뜻이고요. 나마라는 것은 ‘~이라는’ 또는 ‘무슨 이름을 가진법이라는 뜻이고요. 마하라는 것은 ‘대’ 라는 거죠. 마하야나, 대승 할 때 ‘마하’가 ‘대’니까요. 그다음 바이플리아는 방광이라는 뜻이고요. 수트라는 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해 보면 불장엄이라고 하는, 또는 불장엄이라는 이름을 지니는 대방광경이라는 산스크리트 제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은 어느 다른 번역으로부터 이렇게 다시 재번역한 것이 아니라, 산스크리트본으로부터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산스크리트 원본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티베트어역 1종이 남아 있다고 했는데, 티베트어는 한문과는 달리 산스크리트본과 언어의, 말의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역으로 티베트어에서 산스크리트를 환범한다고 하는데, 다시 돌리는 게 한문보다는 용이한 편인데요. 티베트어역 제목을 보면, 아까 나왔지만 ‘상계 펠포체 세자와 신투 게파 첸페이도’ 라고 해서 이것 또한 뜻으로만 보면 불장엄이라는 대방광경이라고 해서 앞서 설명 드린 산스크리트본 단편으로부터 확인한 제목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엄의 나라

그런데 문제라고 할까요? 조금 상이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얘기했던 한역 경전의 제목은 대방광불화엄경입니다. 대방광불화엄경인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장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대방광경과는 아무래도 조금 상이한 제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는데요. 대방광불화엄경을 산스크리트어로 환범을 하게 되면 ‘마하바이폴리아 붓다 간다뱌아 수트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한문으로 음사가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음사가 남아 있어서 이렇게 환범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대방광불화엄경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산스크리트본 제목이나 티베트 제목과는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광이라는 게 무엇이나. 이게 대방광불화엄경의 제목을 이해하는 데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산스크리트본이나 티베트본은 불장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대방광경. ‘대’ 라는 건 크다는 뜻이니깐 그렇다 치고요. 방광경이라는 것은 경의 제목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경의 종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산스크리트본이나 티베트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방광경의 의미가 뭐냐는 것을 살펴봐야 하는데, 방광경은 사실 상당히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다고 할까요? 무슨 얘기냐면, 석가모니 붓다의 가르침을 극 초기부터 9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하는 전통이 불교 내에서는 존재했는데요. 그것을 보통 구분교라고 얘기합니다. 구분교는 갖가지 경이니 이런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용도와 내용에 따라서 9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중 세 번째. 순서는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중 세 번째가 기답이라고 해서 ‘베야카라나’ 라고 하는 가르침, 경의 한 종류겠죠. 기답이라고도 하고 수기, 기설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있고, 또 여덟 번째에는 베달라라고 해서 이것을 한역할 때는 보통 방광이라고 한역합니다.

방광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대방광불화엄경 또는 티베트어역에서 방광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종류로 지칭할 때 사용되는 방광과 이름이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세 번째 기답, 베야카라나. 세 번째, 베야카라나에서, 기답이라는 건 뭐냐면 제자와 스승.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석가모니 붓다와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 종종적으로 문답을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베야카라나, 기답이라고 했거든요. 답에 대해서 기한다, 그러니까 기답이죠.

그래서 정형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문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세 번째 베야카라나, 기답의 내용이고 형식인데, 정형구로 많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더 확장된 내용이 여덟 번째의 바이폴리아 또는 베달라라고 하는 방광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설교가 문답을 추구하는 형식으로 전개되면서, 제자들 간의 문답이죠. 석가모니 붓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자가 다시 묻고 다시 답하는 것이 중복적으로 이어지면서 그 의미를 확대하고 심화하여 약간 확장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장되었다고 하는데, 세 번째 기답이 확장된 형태를 베달라 또는 바이폴리아 또는 한역을 하면 방광 또는 방등이라고 부르는 구분교 중 하나가 방광경입니다.

그래서 방광경이라는 것은 경전의 내용에 따른 제목이 아니라 경전의 종류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산스크리트본과 티베트본에서는 정확하게 불장엄이라는 이

화엄의 나라

름. 그러니까 이 경의 이름은 불장엄인 거죠. 불장엄이라는 이름을 가진 방광경의 하나라는 것이 산스크리트본 대방광불화엄경의 제목이지만,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역 경전에서는 그런 의미를 찾아보기 힘들게 대방광불화엄경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면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하면, 제목을 정리하면 산스크리트 티베트어역의 제목은 불장엄이라는 제목을 가진 아주 규모가 큰 방광경. 방광경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세 번째 베야카라나, 기답이 확장된 형태이지만 그것 중에서도 상당히 규모가 큰 방광경이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진 제목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화엄경을 보시면 아시지만 대승경전 중에서도 아주 특정한 체계를 갖추고 집성된 경전으로는 아마도 가장 큰 경전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가 경전입니다. 60권이고 80권인데, 물론 반야부 경전에 600부 경전도 있고 방등경 등 상당히 큰 경전, 분량으로만 따지면 더 큰 경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떤 완비된 체계, 편집 의도가 딱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큰 경전이지만, 분량과 편집 의도, 체계를 갖춘 것을 둘 다 고려한다면 대방광불화엄경도 반야부 경전 못지않게 상당히 규모가 큰 경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 산스크리트본과 티베트본은 이런 의미를 가지는 제목인데, 그러니까 방광경의 종류로써 제목은 불장엄. 상당히 크다.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현존 한역 제목인 대방광불화엄경은 이런 방식으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렇게 번역됐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 앞으로도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또 하나 첨언하자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동아시아의 화엄사상은 대방광불화엄경을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방광불화엄경이라는 경의 제목에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방광불화엄경을 근간으로 하는 동아시아 화엄사상은 대방광불화엄경의 경제를 상당히 중시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방광불화엄경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많은 대승경전들의 제목을 보시면,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불설 무슨 무슨 경전.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불설경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불설아미타경을 불설대부모은중경, 불설관무량수경 등등인데.

즉 이것은 뭐냐면, 부처 아닌 중생이 경전에 따라서 또는 부처님이 설하는 방법에 따라서 부처가 된다는 점에서는 공통됐다고 볼 수 있죠. 즉 부처님이 설하시는 거죠. 무엇을? 부처가 되는 방법을, 누구에게? 부처가 아닌 중생에게. 그런 의미에서는 불설경전의 특징을 그렇게 잡을 수 있지만, 대방광불화엄경의 특징을 보면 예로부터 설불경전이라고 많이 표현하였습니다. 즉 대방광불화엄경은 불설경전이 아니라 설불, 즉 부처에 대해서 설하는 것. 즉 부처의 경계를 설하는 경전이고, 다시 말하면 부처의 경계를 바로 드러내는 경전이다. 실제로 보면 대방광불화엄경은 석가모니 붓다가 직접 말로 설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후반부에 2품 정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석가모니 붓다의 광명의 가피를 받아서 보현보살이나 문수보살 또는 다른 여러 보살들이 부처의 경계를 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용상으로도 설불경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엄의 나라

이상으로 이번 시간의 강의를 요약한다면, 먼저 이번 시간에는 대방광불화엄경의 제목을 살펴 보았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의 제목은 산스크리트본과 티베트본의 제목은 유사한데 반하여 한역본의 제목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대방광불화엄경의 특징으로는 다른 대승경전들이 불설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면 대방광불화엄경은 여러 보살들이 부처의 경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설불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방광불화엄경의 구성과 화엄부 경전이 인도로부터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유통되고 전래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5

화엄부 경전 개요(3)

세 번째 시간으로서 대방광불화엄경의 구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목표는 대방광불화엄경의 구성을 파악함으로써 대방광불화엄경 집성의 의도를 살펴본다는 것인데요.

무슨 말이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방광불화엄경, 즉 화엄대경은 화엄부 경전 중에서도, 화엄부 경전은 3가지 카테고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카테고리, 즉 가장 완비된 체계를 가지고 어떤 편찬 의도를 가지고 집성된 경전이라고 했고 큰 경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중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층적인 의미를 파악하면 대방광불화엄경을 누가 집성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집성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가를 추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추정된 의도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대방광불화엄경의 구성을 살펴보고 하는데요. 대방광불화엄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역으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418년부터 420년에 번역된 60권본 화엄경이라고 얘기되는, 60화엄이라고도 얘기되는 경이 있고 또 하나는 695년부터 699년에 번역된 80권본 화엄경이 있는데요. 둘 다 화엄대경이라고도 불리는 대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로는 80화엄을 많이 애용하고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의에서는 80화엄을 기준으로 해서 대방광불화엄경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80권본의 구성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7처 9회 39품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7처라는 것은, ‘처’는 장소의 처이기 때문에 일곱 장소에서 설해된다는 겁니다. 대방광불화엄경이라는 큰 경전은 일곱 장소에서 설해됩니다. 즉 석가모니 붓다가 일곱 장소, 서로 다른 장소에서, 그러니까 일곱 종류겠죠. 일곱 종류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9회, 아홉 번 모여서 대방광불화엄경이 설해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 모인다는 얘기는 한 번 모이고 두 번 모이고 세 번 모이고 해서 아홉 번 모인다는 얘기인데, 따라서 간단히 산수를 통해서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두 번 이상 모여야겠죠, 그렇죠? 아홉 번 모이는데, 모인 장소는 일곱 장소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어떤 장소는 두 번 이상의 모임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품이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39품의 품은 내용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현대 말로 얘기하면 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굳이 영어를 쓴다면 챕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처 9회 39품이 대방광불화엄경의 구성을 간단하게 나타낼 때 자주 애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방광불화엄경 80화엄은, 60권도 마찬가지로인데요. 60권 같은 경우에는 80화엄과는 달리 7처 8회 34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0권 화엄경도 그렇고 80권 화엄경도 그렇고,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부로 구성되어 있는 게 무슨 얘기나면, 첫 번째 1부에서 대방광불화엄경의 전체 구성 의도를 한번 다 보여 줍니다, 1부에서.

화엄의 나라

그다음에 2부에서는 1부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에 선재동자라는 구체적인 인물을 등장시켜서 1부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동아시아 화엄종에서 전통적으로 얘기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부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9회에 걸쳐서 대방광불화엄경이 얘기된다고 했는데요. 1회부터 8회까지, 품수로는 제1품부터 제38품까지 이르는 내용. 그러니까 경의 전체로 본다면 앞의 전반부겠죠. 전반부 중에서 3분의2 정도의 분량에 해당하는 부분, 품수로 따진다면 전체 39품 중에 38품이지만 분량으로 따지면 한 3분의2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1부에 해당합니다. 제1부에 해당해서 거기에서 일단 대방광불화엄경의 내용이 다 설해지고, 그것을 제2부, 제일 마지막 회이자 제일 마지막 품인, 구체적으로는 입법계품이라고 하는데요.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가 등장해서 1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선재동자가 선지식을 역참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대방광불화엄경의 구성을 설치와 설주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설치라는 건 대방광불화엄경이 설해지는 장소를 얘기하고, 설주라는 것은 대방광불화엄경을 설하는 주인공이 랍까요? 대방광불화엄경을 설하는 인물을 얘기하는데요.

왜 설주라는 표현을 쓰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방광불화엄경은 불설경, 즉 부처님이 설하는 경전이 아니라 부처님을 설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붓다가 직접 설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 붓다가, 물론 큰 의미에서는 광명으로 전체를 다 설법하고 있다고 하지만, 말로 그 광명으로 설법하는 내용을 풀어내는 것은 석가모니 붓다가 아닌 석가모니 붓다의 광명의 가피를 받은 여러 보살들이기 때문에 대방광불화엄경에서는 설주라는 다른 경을 설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먼저 살펴보면, 크게 설치 또한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설치에 따라서 설주가 구분 되는데요. 맨 처음에 지상에서 설해질 때는 주로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설해지는 보현경전계와 문수경전계는 지상에서 설해집니다, 지상에서. 그런데 천상에서 설해질 때, 천궁에서 설해질 때는 십지경전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십지경전계가 주로 설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용과 다시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상에서 설해질 때는 2가지 경전이 설해집니다.

보현경전계와 문수경전계인데, 보현경전계에서는 주로 불경계 자체에 대해서 설하고를 문수경전계에서는 그 불 자체의 경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내용이 주로 설해집니다. 그래서 천궁에서는 십지경전계가 설해지는데, 그것은 십지경전계를 설하는 십지보살들의 얘기가 되는데, 십지보살들이 얘기하는 십지경전에서는 일승보살도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은 여러분이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 내용들은 지금 한번 불교에서는 무루습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두시고 당연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귀에 흘리시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일단 귀에 익숙하게 흘러두시지만 하면 앞으로 계속 나올 내용들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면 지상에서 맨 처음에 보현, 문수. 보현보살과 문수보살 중 맨 처음에 보현보살이 나와서 부처님의 경계, 부처님의 본래 경계에 대해서 아주 방대하게 설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문수보살이 나와서, 똑같은 지상입니다. 땅바닥에서, 지상에서 문수보살이 나와서 부

화엄의 나라

처님의 경계에 대해서 믿음을 내는 내용을 가진 경전을 설하는 문수경전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내용이 설해지면 그다음에는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천상으로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십지경전계가 얘기되는데요. 십지경전계는 전통적인 화엄종에서는 불경계와 다를 바가 없는 일승보살도의 경계가 천상에서 설해집니다.

그다음에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보현보살에 의해서 다시 부처님의 과덕. 그러니까 부처님의 과행용이라고 하는데요. 부처님의 과덕으로서의 행용을 설하는 내용이 설해지는데, 이게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하늘이 지상보다 더 뛰어나고 그다음에 복덕도 많고 천국에 가자는 얘기를 하면 천국이 지상보다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대방광불화엄경의 설처와 설주의 구성 내용을 본다면 지상에서는 불처의 경계가 설해지고 천상에서는 보살의 경계가 설해진다는 측면에서 조금 재미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화엄종에서의 전통에서는 불과 보살의 경계가 같으나 같지 않으나 그런 차이를 두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불이 먼저이고 보살이 나중에이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불이 설해지고 천상에서 보살이 설해진다는 것은 약간 재미있는 구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방광불화엄경의 1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서 제가 잠깐 설처가 어떻게 올라가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제1회부터 제8회까지가 1부입니다, 그렇죠? 전체 9회 중에서 마지막 9행은 2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1부에서 전체 내용이 한번 얘기되는 거니까 2부는 놔두고 1부 내용으로만 본다면 제1회와 2회에서, 1회에서 보현보살과 2회에서 문수보살이 나와서 부처님의 잔해진경계와 그다음에 그 잔해진경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지상에서 설해집니다.

그다음에 제3회에서는 십주법문이 설해지는데, 그게 도리천에서,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설해집니다. 도솔천은 33천이죠. 도리천에서 설해지고, 그다음에 십행. 그다음에 십지경전계를 먼저 다 말씀드리면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로 이루어진 십지경전계가 천상에서 도리천, 그다음에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4가지 하늘에서 각각 십주와 십행과 십회양과 십지가 설해지고, 이것을 전통적으로 화엄경에서는 일승보살도의 법문이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즉 3, 4, 5, 6회가 이렇게 설해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것은 보광명전이라고 해서 앞에서 문수보살이 얘기했던 보광명전에 다시 설해지는데요. 그것이 보현보살에 의해서 7회와 8회는 다시 석가모니 붓다 또는 붓다의 과보로써의 행용, 구체적인 작용을 설하는 경계를 설하는 경전이 7회와 8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에서, 천상에서 다시 지상으로, 지상에서는 부처님의 경계. 그다음 천상에서의 보살의 경계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60화엄과 80화엄을 비교해 보면,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다만 전체적으로 조금 증강, 확장되었다는 차이가 있고, 내용은 같은데 60화엄에는 한 품으로 되어 있는 것이 80화엄에는 약간 2품에서 6품으로 품이 나뉘었다든가, 또는 60화엄에는 없는 품이 80화엄에 하나 추가된다든가.

또는 60화엄에서는 한 모임, 한 회에서 설해진 것이 80화엄에서는 여러, 두 모임으로 나뉘어서 설해진다고거나 이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체적으로는 60화엄과 80화엄의 체계의 의도, 편찬 의도는 거의 같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의견이고요. 다만, 체계는 유지하되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화엄의 나라

60화엄에서 80화엄으로 증강되었다는 것이 기존의 이제까지의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제가 계속 말만 앞에서 떠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하실 텐데요. 화엄경이 진짜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하든가’ 라고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제가 여기에서 화엄경 맛보기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여 드리는 것이 고려의 재조대장경, 우리 일반적으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대장경에 포함되어 있는 80화엄경의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 대방광불화엄경을 번역할 때 대주 연간, 즉 695년부터 699년 사이에 번역됐다고 했는데, 그게 측천무후라는, 중국 역사상 아주 훌륭한 인물이잖아. 그 훌륭한 인물이 불교를 상당히 신봉했는데, 숭상해서 우존국에 사신을 보내 가지고 화엄경 원본을 가져옵니다.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실차난타라는 고승한테 번역하게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직접 서문을 씁니다. 그게 여기 지금 대주의 황제가 직접 쓴 서문이 먼저 나와 있고 그다음 여기에 대방광불 화엄경의 원문이, 여시아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원문이 시작되는 것이 이렇게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첫 페이지부터 두 번째 페이지까지는 황제의 서문이 나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좀 지나서는 대방광불화엄경 권제일이라고 해서 우존 삼장 실차난타가 번역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가장 첫 품의 제목인 세주묘엄품 제1지의 1이라고 해서 여시아문이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경의 시작을 알리는 문구와 함께 대방광불화엄경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방광불화엄경의 구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80권 화엄경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았고요.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고, 그다음에 설처와 설주로는 천상에서 지상, 지상에서는 부처의 경계, 천상에서는 보살의 일승보살도를 얘기한다는 구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Ⅲ. 퀴즈

1. OX퀴즈

문제: 화엄사상의 근간이 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대승경전 중 하나이다.

정답: O

설명: 『대방광불화엄경』은 대승경전 중 하나로서 초중기 대승경전에 속한다.

2. OX퀴즈

문제: ‘화엄華嚴’의 뜻은 ‘꽃장엄’이다.

정답: O

설명: 『대방광불화엄경』에서 ‘화엄’은 ‘꽃장엄’을 의미한다.

3. OX퀴즈

문제: 이른바 ‘화엄대경’이라고 불리는 『대방광불화엄경』은 3, 4세기경에 인도 서북부 지역에서 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X

설명: 현재 주류 학설에서 『대방광불화엄경』은 3, 4세기경 중앙아시아(코탄=우전)에서 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4. OX퀴즈

문제: 『대방광불화엄경』은 다른 대승경전들과는 달리 부처가 직접 설하는 경전이라는 의미에서 불설 경전이라고 불린다.

정답: X

설명: 『대방광불화엄경』은 대승경전 중 하나로서 초중기 대승경전에 속한다.

5. OX퀴즈

문제: 『대방광불화엄경』의 전체 구조를 설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보면 세간에 속하는 [지상]에서 세간의 [천상]으로 상승한 뒤, 마지막에는 이러한 세간의 [천상]마저 벗어나 [출세간]으로 초월한다.

정답: X

설명: 『대방광불화엄경』이 설해지는 장소는 [지상] → [천상] → [지상]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IV. 토론

□ 다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다른 불교 경전들은 일반적으로 부처가 부처 아닌 중생들에게 부처가 되어 고통을 여임(해탈)에 관해 설하는 구조이다.(불설) 이에 반하여 『대방광불화엄경』은 다양한 보살들이 설주가 되어서 고통을 여인 부처에 대해 설하는 경전이다.(설불)

설불 경전과 불설 경전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그것을 접하는 우리에게 생겨나는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V. 참고문헌

□ 해주스님, 『화엄의 세계』, 민족사, 1998

□ 기무라 키요타카 지음, 김천학 외 옮김, 『화엄경을 읽는다』, 불교시대사, 2002